

이해를 돕는 보충 설명 말씀

기독교는 30년 전쯤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시작 된다고 하며 한국이 떠들썩하게 외쳤습니다. 미국은 7년 전부터 주남 선지자의 책을 보고 재림에 대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 듣고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섭리사에서 예수님의 영이 오심을 알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산 자는 구원을 받은 자며 거듭난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부활이며 지구라는 공중에서 휴거된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는 휴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섭리가 시작할 때부터 가르쳤으면 마음이 들떠서 전도하는 일과 섭리역사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주님이 곧 강림한다고 외쳤던 자들은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 오히려 낙심하면서 모르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재림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도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마지막 때의 재림을 강조하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면, 3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으니 사람들은 선생을 신임하지 않고 혼자 급한 마음에 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고 했듯이, 먼저 30년 동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맞는 사도시대 신앙을 넣어 준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7년 전부터 밝힌 말씀과 요즘에도 계속 밝히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에게도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급히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외치게 했느냐고 물으니, “너희는 30년 동안 재림에 대하여 배우며 땅에서 육신과 행동의 변화를 하며 왔기에 잠을 자지 않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지막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더 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섭리는 나의 것이니 그동안 내가 알아서 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회를 갈 때 오늘 순회 가니 같이 가자고 아침 일찍부터 말해 주는 자도 있고, 점심 때 말해 주는 자도 있고, 순회 직전에 말해 주는 자도 있다 하자. 누가 긴장하여 더 빨리 준비하고 차를 타겠느냐. 일찍 알려 주는 자는 육적이고 준비할 것이 많으니 일찍 말해 주는 것이나, 실상 오랜 시간이 흘러 오전이 넘고 오후가 되어도 순회

를 떠나지 않으니 잠도 자고, 집도 다시 풀고, 빨래하고, 시장도 갔다 온다. 고로 늦게 조금하게 연락을 받은 자는 더 긴장하여 그 길을 가기 쉽다.”고 주님은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차근차근 근신하며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집중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깨닫게 하는 것만 말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빛에 있는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전 5: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이 온다고 열흘 전부터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안 오는가 보다.’ 하며 태만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고로 오래 준비했어도 도적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도적이 담장 넘어 왔다고 하면 ‘오늘 밤이구나.’ 하며 긴장하여 도적을 맞지 않게 됩니다.

빨리 안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알았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했으면 늦게 안 것보다 더 좋은 것이지만, 빨리 알았는데 긴장을 풀어 오히려 그 날을 맞지 못하게 되니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맞아 생활과 신앙이 부활되고 휴거되어 살았습니다. 고로 깨어 있었었습니다. 그동안 선생을 통해 수천 번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미리 한두 달 전에 알면, 어느 날 인지 몰라서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풀어지고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몇 시간 전에 아는 것이 더 긴장됩니다. 고로 생활 가운데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급박하게 알아도 준비한 대로 바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여러분들의 문밖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구촌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모두 빛에 속하였기에 말해 주었으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공적을 쌓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며 회개할 시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 재림의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의 영이 부활되어 휴거되고, 살아 있는 자들도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휴거 되는지 주님이 앞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